

단심실 치료 '폰탄수술' 세계 수준 도달

알간보사 2/4

수술환아 217명 10년 생존율 88%

서울대병원 김용진 교수팀 보고

국내 한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선천성 단심실 환아 치료를 위한 폰탄수술이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

◇김용진 교수

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교수팀(장지민, 이정렬, 노준량)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 심혈관수술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“기능적 단심실 환아의 수술적 치료인 전대정맥폐동맥문합 폰탄술을 시행한 후 추적관찰한 결과 88%의 생존율을 보였다”고 발표했다.

폰탄술법(Fontan operation)은 심실 및 폐혈관의 기능을 보존하고 부정맥을 최소화하여 폰탄경로내의 유체역학을 향상시키는 고난도 술기로 선진국의 우수 의료기관의 생존율도 80~90%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연구팀은 지난 199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심방폐동맥연결 술식을 제외한 전대정맥폐동맥문합술을 시행받은 환아 217명(여 78명, 남 139명)을 대상으로 기형의 종류와 폰탄술의 종류, 합병증 및 전체 생존율 등을 정리했다

환자의 평균연령과 체중은 39.2개월, 13.8kg이었고 진단별로는 △이중입구부심실 150례 △삼첨판폐쇄 31례 △양대혈관우심실기시증 17례 △기타 19례 등으로 조사됐다. 또한 폰탄술식의 종류로는 △심내측부터널 폰탄술 157례(72.4%) △심외폰탄술 60례(27.6%)이며 평균 관찰기간은 46.5개월로 분석됐다.

김 교수팀의 추적관찰 결과, 10년 생존률은 87.8%로 높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조기사망률 5.5%(12명), 만기 사망률 3.4%(7명), 부정맥 6%(13명) 등으로 집계됐다.

이와 관련 김용진 교수(흉부외과 과장)는 “폰탄군 13년의 경험을 발표한 이번 결과는 국내 수술 수준이 세계적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”이라며 “폰탄술 후 재수술 증례보고에서도 합병증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”고 설명했다.

/ 이창진 기자 jina@bosa.co.kr